

Contents | 목차

04 신년인사 | 법륜스님



해외소식

- 06 나마스페, 등게스와리(인도)
인도에서 온 편지 | 박성재
- 09 살라맛, 민다나오(필리핀)
필리핀 현지 교사들과 함께 한 행복한 2박 3일 | 배명숙
- 13 망글라바, 미얀마
미얀마로 간 미꾸라지 | 김성현
- 16 아빠 까바르, 인도네시아
내사랑 우바 | 김선옥
- 19 쫄리읍쑤어, 캄보디아
캄보디아 주민들에게 새해 선물을! | 박병수



국내소식

- 22 특별기획 “굶주리는 지구촌 아이들의 엄마가 되어주세요”
JTS와 길벗이 함께하는 2012년 연말 거리모금 캠페인 | 편집부
홍보대사 한지민의 편지 | 한지민
- 26 함께하는 사람들
해외 파견자 인터뷰 | 편집부
신규 파견자 인터뷰 | 편집부
- 30 함께 나누는 사랑
동일본 대지진 긴급구호 답방 이야기 | 편집부



활동터소식

- 31 해외, 국내 JTS 뉴스
인도 / 필리핀 / 캄보디아
- 36 후원인의 소리
- 38 나눔회원소식
특별후원금 / 해외JTS 후원금 / 나눔저금통 현황

펴낸날 2013. 1. 7 펴낸이 법륜 만든이 박지나 펴냄터 JTS 다운이 강선미, 양은지, 김옥희, 김혜원, 최지정, 김진진, 문태훈, 최양희
디자인 · 제작 신명기획 02)2273-6128

주 소 137-875 서울시 서초구 서초3동 1585-16 전화 (02)587-8756 / 후원문의 (02)587-8995 팩스 (02)587-8998
E-mail jts@jts.or.kr 홈페이지 www.jts.or.kr



계사년(癸巳年) 새해가 밝았습니다 후원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해 첫날 전국 곳곳에 눈이 내렸습니다. 따뜻한 방 안에서 겨울을 나지 못하는 우리 주변의 소외된 이웃에게도 눈은 고루 내려 삶의 추위를 덜어 줄 것입니다. 그러나 살을 에는 추위도 우리의 마음을 차갑게 할 수는 없습니다. 지난 한 해에도 후원회원 여러분의 큰 사랑으로 굶주리는 지구촌 이웃의 몸과 마음을 따뜻하게 덥힐 수 있었습니다.

지난여름 북한은 심각한 수해를 입었습니다. 가뭄이나 고통 받는 북한 주민들에게는 건디기 힘든 고통이었습니다. 남북관계 경색국면에도 불구하고 다행히 인도적 지원의 길이 열려, 가장 피해가 컸던 평안남도 성천군과 안주시에 긴급구호 식량 500톤을 지원할 수 있었습니다. 북한의 어린이들과 노약자들이 영하 50도를 넘나드는 엄혹한 겨울을 무사히 넘길 수 있도록 모두 기도해주세요.

올해로 19주년을 맞이한 인도 JTS의 활동도 변함없이 활발합니다. 수천 년 동안 '신도 버린 땅'이었던 동게스와리 지역, 그러나 인도 JTS 자원활동가들의 헌신적인 노력과 현지 주민들의 절실한 의지로 봄날의 아지랑이처럼 희망찬 변화의 기운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지난 한해 가장 큰 성과 중 하나는 인도 결핵퇴치 사업을 종료한 것입니다. 동게스와리 지역 결핵환자 대부분이 치료를 받고 완치되는 성과를 내었으며, 활동가들의 지속적인 노력으로 지역의 결핵관리 시스템을 인도의 국가결핵관리프로그램인 RNTCP(Revised National Tuberculosis Control Program)으로 인계하여 이제 인도 정부로부터 직접 결핵 치료약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정도까지 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었던 것은 모두 후원회원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 덕분이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결핵퇴치 사업에 후원해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필리핀 JTS는 그간 활발한 활동에 힘입어 이제 내실을 다지는 시기로 접어들었습니다. 오지 마을 학교 신축을 지속하는 동시에 원활한 교육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교사 훈련을 시작하였습니다. 또한 올해는 원활한 다물록 지원사업을 위하여 필리핀 JTS 지부를 설립할 계획입니다. 역동적인 필리핀 JTS의 활동에 아낌없는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캄보디아 북동부 라타나끼리주에서는 한창 학교 건축 사업이 진행 중입니다. 캄보디아 JTS는 주 교육청과의 협의 후, 2012년부터 5년간 라타나끼리주에 50개의 초등학교 건축을 목표로 사업을 진행 중입니다. 라타나끼리주는 캄보디아에서도 소수민족이 사는 오지 중의 오지로, 외부의 지원이 절실히 필요한 곳입니다. 어느 국가에서나 아동 교육은 나라의 근간이요 희망입니다. 아시아의 최빈국 중의 하나인 캄보디아의 미래 역시 이 어린이들에게 달려있습니다. 라타나끼

리주 전 지역 어린이들이 학교에 다닐 수 있도록 후원회원 여러분들의 따뜻한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인도네시아 JTS는 서부 수마트라주 아감군 일대를 중심으로 지역의 농업 생산성 증가와 수익 증대, 영유아 및 임산부의 보건 의료 접근기회 증가, 취약계층 어린이들에게 교육 기회 제공을 목표로 활동하였습니다. 그 결과 유치원 2개소, 마을 보건소 2개소 신축 및 관개수로 2.8km 정비, 5개 농업조합에 농기계를 지원 등 성과를 올렸습니다. 또한 6개 초등학교에 빗물을 이용한 생활용수 개선 사업을 진행 중입니다. 적정기술을 활용한 친환경적인 인도네시아 JTS의 활동에 주목해주세요.

미얀마에서는 드디어 JTS의 첫 삽을 떴습니다. 지난여름 미얀마 역시 심각한 수해를 입었습니다. 미얀마 JTS는 정부나 타 단체의 손길이 미치지 않는 오지 짜웅공 지역에 긴급구호 식량을 전달하였습니다. 교량 건축과 도로 정비 등 마을 개발 사업으로 시작되는 미얀마 JTS의 활동을 기대해주세요.

올해도 변함없이 국내에서는 거제도 소재 장애인 재활복지시설인 애광원 식구들과 함께하는 경주 소풍과 경남 울주군 두동, 두서, 두북 마을 어른을 위한 치가 있었습니다.

1993년 인도 캘커타 근교 보팔라에 의료캠프를 개설한 것으로 시작한 JTS가 올해로 20주년을 맞이합니다. 지난 20년 간 한결같은 마음으로 기아·질병·문맹 퇴치를 위한 JTS의 활동에 동참해주신 후원회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시아의 빈곤과 아픔은 아시아인의 손으로 해결하자'는 간절한 마음으로, 민족과 국가의 경계를 넘어 굶주리고 아픈 모든 이들에게 도움의 손길이 닿을 수 있도록 JTS의 활동을 확대해 나갈 것입니다. 지속적인 관심과 후원으로 여러분들께서 지구촌의 희망이 되어 주십시오.

계사년 한 해에도 두루 평안하시기를 기원합니다.

2013년 1월 1일
JTS 이사장 **법륜** 합장

사진 / 학교 아이들과

인도에서 온 편지

- 신규활동가의 소감과 2013년 활동에 대한 다짐



지난 11월 인도 JTS로 파견된 신규활동가 박성재씨의 활동 소감과 2013년 활동에 대한 다짐입니다.

함께하고 글쓴이 인도 JTS - 박성재 활동가

인도 맛보기 잠자는 새벽은 낮은 기온에 추위로 옷을 두껍게 입고 침낭에 들어가 수면을 취하고, 오후에는 날씨가 따뜻하여 반팔을 입습니다. 하루에 4계절을 다 가지고 있는 이곳에서 날씨에 적응하느라 이래저래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잠시라도 한눈을 팔면 벌벌 떨게 되고, 잠시 있으면 더워서 옷을 벗게 됩니다. 자다가 덥다고 침낭 밖을 나와 잠을 청한 날에는 새벽에 일어나 꿈 꿔 열은 침낭을 덮을 수도 안 덮을 수도 없는…….



“그래도 인도인들의 삶을 조금이나마 맛보게 되고, 이렇게 몸으로 소통할 수 있어 기쁩니다.”

날씨에 적응을 할 때쯤이면 위생과 먼지에 애를 먹습니다. 외부에 다녀올 때면 운동 먼지를 뒤집어쓰고 돌아옵니다. 기침을 달고 살고 목에 불순물이 끊이지 않습니다. 덕분에 새벽 기도할 때 우스꽝스러운 목소리가 나오는 일이 다반사입니다.

그래도 인도인들의 삶을 조금이나마 맛보게 되고, 이렇게 몸으로 소통할 수 있어 기쁩니다. 그들이 살아가는 삶, 내가 살아왔던 삶, 그리고 앞으로 내가 살아갈 삶……. 그 과정을 되돌아보게 되고, 그 삶에 대하여 감사한 마음을 가지게 되는 거 같습니다.

따라 해보기 인도 사람과 같이 하는 기분으로 맨발로 축구를 해 보았습니다. 발바닥의 살이 다 터지고 발가락이 부어서 걷기가 힘들었습니다. 인도인과 같이 마스크를 쓰지 않고 먼지를 마시며 일을 하였습니다. 먼지 안의 바이러스에 면역이 약하여 두통과 설사로 삼일 동안 아무 것도 하지 못하였습니다. 사람은 여러 세대를 거쳐 만들어집니다. 그 나라 그 곳 주위 환경에 맞추어 사람은 만들어집니다. 저 또한 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선천적으로 타고난 것에 함부로 따라 하면 안 되는구나, 하고 깨달았습니다. 대한민국에서 깨끗하고 좋은 환경에서 자랄 수 있었다는 것에 감사한 마음을 가져봅니다.

마을 개발 제가 인도 JTS에서 맡게 된 일은 마을 개발입니다. 마을 개발을 시작한 지 이제 10년이 되었습니다. 근래에는 직접 도와주는 방식에서 사업의 방향을 조금 바꿔 이제는 마을 사람들이 직접 나서서 마을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마을에 불편한 부분이 있으면 직접 JTS에 와서 알려주고, 저희는 현장을 답사한 뒤 필요한 만큼의 자재를 제공하여 줍니다. 마을 사람들과 같이 일을 하여 공사를 끝냅니다. 함께 일하면서 점심도 같이 먹고 마을 주민들이 하나 둘 나아지고 밝아지고 있음을 느낍니다. 실질적으로 사업의 성과도 있었지만 마을주민의 자발성을 충분히 이끌어 내기에는 아직 부족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최선의 길을 걷고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지금 진행되고 있는 사업 및 모든 일들이 모두를 위한 최선의 길이라 생각하고, 조금은 더디고 돌아갈지라도 그 결과는 밝을 것이라는 긍정적인 마음을 내어봅니다.

1년의 다짐 인도인 따라 하다 몸져 누웠습니다. 첫째! 건강을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2013년 한 해 동안 JTS 사업 이념에 맞게 발맞추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내 위주의 사고를 벗어나 세상살이를 넓게 보려 합니다. 제가 갖춘 조건 범위 안에서 할 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잘 하겠습니다.



글을 마치며 무위이치(無爲而治)라는 말이 떠오릅니다. 굳이 다스리려 하지 않아도 다스려진다는 뜻입니다. 나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는 일이 곧 모두에게 이로운이 되는 길을 선택하겠습니다. 모든 것을 받아들이고 겸허한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겠습니다.

여기에 멀정한 사지와 정신을 가지고 존재할 수 있는 저의 근본인 부모님께 감사드립니다. 새로운 삶의 터전과 이곳에서 일할 소중한 기회를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합니다.

달려라, 란디르! (제 인도 이름은 란디르입니다.)



마을을 방문하고

사진 / 교사 워크숍



필리핀 현지 교사들과 함께 한 행복한 2박 3일 - 필리핀 JTS 교사 워크숍 후기

“왜 민다나오를 돕고, 다물록의 학교를 돕나요?”

지난 11월, 1박 2일 일정으로 사라와곤 지역을 방문했을 때 일이었다. 현지 교사들과 즐겁게 이야기하던 중 한 교사가 이 질문을 던졌다. 선뜻 대답하지 못했지만, 질문은 계속해서 떠올랐다.

함께하고 글쓴이 필리핀 JTS - 배명숙 활동가

이번 교사워크숍은 이 질문으로부터 시작한다. 필리핀 청년인 교사들과 한국 청년인 우리들은 서로 어떤 고민을 가지고 있는지 공감대를 형성하고 싶었다. 또한 그 과정을 통하여 JTS의 방향과 계획을 제대로 공유해 보고자 하였다.

이번 교사워크숍 이전에 지난 5월, 다물록 지역 6개 학교 교사 11명과 교사 워크숍을 진행하였다. 이때는 마을 리더로서의 교사의 역할을 강조하는 한편, 교수·학습 역량 강화를 위해 다(多)학급 운영 방식, 영어 교수·학습법 강의를 열었다.

그 후속 모임으로 다물록 6개 학교 대표 교사모임을 발족하여 매월 마지막 주 금요일마다 모임을 가졌다. 교사워크숍 50일 전에 프로그램 준비팀을 결성

하였다. 교사들 스스로 준비할 수 있도록 역할을 나눈 결과, 오프닝 행사의 사회, 아침 기상 후 체조, 단체 게임, JTS 활동가와의 토크쇼 등 기꺼이 프로그램을 준비하였다.

드디어 지난 12월 13일 오후 4시, 다물록 지역 19명 교사들과 함께 JTS 센터에서 교사 워크숍을 시작하였다. 오프닝 행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지난 9월 말 미끼실리 학교에서 출산을 하다가 운명을 달리한 교사를 위해 묵념하였다. 오지 중에서도 오지 학교 미끼실리에서 끝까지 최선을 다한 교사의 모습이 아른거렸다.

첫 세션으로는 우선 2012년 한 해를 돌아보며 자신이 세웠던 목표를 점검해보고, 팀별로 자신의 경험, 성과와 개선점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다음으로 오지에서의 학교생활을 연극으로 만들어 발표할 것을 제안하였다. 최고의 팀을 선정한다고 하였기 때문일까? 너무나 열성적으로 준비를 하고 연습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드디어 세 팀의 공연이 시작되었다. 엉덩이의 고통을 적나라하게 표현한 팀은 주요 이동 수단인 말을 한 시간 이상 타고 산을 올라본 사람만이 공감할 만한 내용을 보여주어 우리들의 배꼽을 잡게 하였다. 혼합 학급에서 아이들을 달래 가면서 수업하는 모습은 한 명의 교사가 두 개 이상의 학급을 관리하는 어려움을 볼 수 있었다. 또한 분쟁 지역에서 마을 지도자와 반군 사이에 화해를 이끌어내는 모습 등이 인상적이었다. 너무도 실감나게 연기를 하여 실제인지 연기인지 구분이 안 될 정도였다.

JTS 활동가와의 토크쇼 시간이 이어졌다. 현지 교사들의 질문에 답하는 시간이었다. 결혼 계획에서부터 활동하면서 어려운 점, 필리핀인의 장점 등 다양한 질문이 나왔다. 사라와곤 지역 교사가 그 질문을 다시 했다. “왜 민다나오를 돕고, 다물록의 학교를 돕나요?” 송지홍 활동가가 대답을 하였다. 만족하는듯한 모습이였다. 여러 질문과 답이 오고 가면서 점점 서로 가까워지는 느낌이 들었다.

영어 교수 학습 강의시간



이튿날은 영어 통합 교수·학습 강의를 하였다. 키다마 지역 교사 체리의 추천으로 만난 강사 도린(Doreen)의 지도하에 2인 1조로 짝을 지어 모의 수업을 하며 다양한 수업 방식을 나눌 수 있었다.

이어서 지난 5월 워크숍 이후 학부모와의 협력으로 학교를 눈부시게 변화시킨 블루안의 사례 발표 시간을 가졌다. 3명의 교사들이 마을 주민들과 학교 화단을 가꾸기 시작한 것이 변화의 시작이었다. 어려운 순간에는 서로가 서로에게 그들이 세운 목표를 꼭 오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격려했다고 한다. 오늘 안 하면 내일 하면 되는 거라고 말이다. 힘든 오후에는 마을 주민들과 어울려 농구를 하기도 하고, 동료 교사가 힘들어하면 유머로 함께 극복하였다고 하다. 마을 주민들과의 화합은 자연스럽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이렇듯 교사가 자발적으로 움직였기 때문에 가능했음을 알 수 있었다. 학부모와 학생들도 적극적으로 학교를 사랑하는 교사의 모습에 감동하여 동참했다고 한다. 교사들의 새까매진 얼굴에서 그들의 노고가 고스란히 느껴져

가슴이 뭉클해졌다. 매 현장방문 때마다 놀라운 변화를 보여주었던 블루안, 이에 JTS는 2012년 최고의 학교로 블루안을 선정하여 시상하였다.

이제 JTS가 야심차게 준비한 시간이 남았다. JTS의 비전과 전략, 2013년의 방향을 공유하는 시간은 올해 JTS가 학교에서 진행한 1박 2일 프로그램, 나무 심기, 동화책 지원과 같은 여러 활동의 목적과 이유를 분명히 하고 과제를 설명하는 시간이었다. 그들이 현재 있는 곳의 모습과 아이들, 우리와 함께한 활동 이야기를 바탕으로 설명을 하니 자연스럽게 남의 이야기가 아닌 우리들의 이야기가 되었다. 더불어 2013년 JTS가 가고자 하는 방향을 이렇게 공유하였다. 교사의 역량 강화를 위해 연구 수업, 방과후 교실, 학교 도서관, 어른 문맹 퇴치 및 학업 중단 탈락률 방지를 제안하였다. 또한 학부모와의 협력을 통해 마을 개발 사업의 일환으로 Green school&community, 학교 위생 개선 등의 과제를 선정하여 해볼 것을 제안하였다. 내가 속해 있는 이곳 학교에서 나부터 시작하지는 간단한 논리가 이들에



사진 / 아침 체조 후

게 통한 것 같았다. 어려운 이론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닌 현실에서 시작하자는 것에 동감하는 눈치였다.

어느덧 2박 3일이 일정이 마무리되어 가고 있었다. 이 시간을 위해 달려온 한 달간의 여정이 마무리되는 것 같았다. 온전히 우리의 손으로 내용을 기획하고 준비부터 마무리까지 진행한 것이 이전에 했던 워크숍과는 많이 달라져 있었다. 한 단계 앞으로 나아가는 느낌이 들었다. 내가 하기 어렵고 이해가 안 되면 교사들을 설득시키고 동참시킬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교사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것을 제안하고 함께 해볼 것을

약속하였다. 올해 교사들과 함께 부대끼면서 활동했던 시간들이 이렇게 교사 워크숍으로 한숨 돌리는 시간이 된 것 같다.

교사가 아이들의 미래이고, 민다나오의, 나아가서는 필리핀의 희망이 될 것을 확신한다.

무엇보다 이번 행사를 위해 애써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소식 속 소식]

2012년 최고의 학교를 소개합니다. - 초보활동가의 블루안 학교 견학기

임선호/ 필리핀 JTS 자원활동가

블루안 학교 앞에는 오동나무처럼 생긴 커다란 바나나 나무가 자리하고 있고, 입구 주변에는 고사한 나무뿌리로 조화롭게 꾸민 화단에 여러 가지 꽃들이 아름답게 피어있다. 현지에서는 '사랑까'로 불리는 봉숭아도 있다. 교사 주변에는 바나나 나무가, 잘 가꾸어진 밭에는 토란과 비슷한 가비 등 각종 작물이 자란다. 정원을 연상케 하는 땅에서 농작물과 꽃들을 조화롭게 가꾸고 있었다.

JTS가 2009년 원주민 지역에 건설한 이곳 블루안 초등학교는 현재 학생 수가 153명, 교실 네 칸에 선생님이 네 명이다. 유치원에 해당하는 프리스쿨과 초등학교 6등급이 모두 운영되고 있다. 이곳이 오지임을 감안하면 결코 작은 규모가 아니다. 활발한 교육 활동뿐만 아니라, 학교를 중심으로 지역 커뮤니티 운영도 잘 되고 있어 짧은 역사에도 불구하고 지역사회 발전에 모범적 사례로 손꼽히는 곳이다.

얼마 전 화전으로 벌거숭이가 된 이곳에 JTS가 나무를 후원하여 주민과 학교가 함께 하는 나무심기 행사를 진행하였다. 교사 미팅, 주민 미팅에 이어 어른, 아이들이 모둠을 이루어 그림을 그리고 왜 나무를 심어야 하는지, 미래의 꿈은 무엇인지 그림을 통해 설명하며 나무심기의 중요성을 다시금 되새겨 보았다. 마을 주민들 모두 어울려 밤까지 캠프파이어를 하며 음식을 나누어 먹고, 농구를 하고, 낮에 그린 그림 중 우수 그림을 뽑아 시상하는 시간도 가졌다. 한바탕 축제가 끝나고 별이 보석처럼 반짝이는 밤이 지나가고 있었다. 이곳 블루안에서 푸른 숲과 함께 아이들의 푸른 꿈도 함께 무럭무럭 자라나기를 진심으로 기원한다.



수녀님 소개로 나병촌 방문

미얀마로 간 미꾸라지 -신규활동가의 좌충우돌기와 새해맞이 다짐

지난 4월 미얀마 JTS로 파견된 김성현씨, 낯선 땅에서 홀로 JTS 사업의 첫 삽을 뜨느라 무척 분주한 한 해를 보내셨는데요. 그런 자신의 모습도 '미꾸라지'라고 재미있게 표현하는 긍정적인 모습에서 미얀마 JTS의 밝은 앞날이 그려집니다.

함께하고 글쓴이 미얀마 JTS - 김성현 활동가



교육청 관계자와 회의

추여탕을 끓일 때는 제일 먼저 살아있는 미꾸라지에 소금을 뿌린다. 그러면 미꾸라지는 고통에 몸부림치다가 체념을 하고 정신줄을 놓는다. 2012년, 도랑에서 대학생이랍시고 책이나 파던 미꾸라지 한 마리가 미얀마라는 바다에 와서 짠맛을 톡톡히 봤다. 꿈틀꿈틀 몸부림치면서도 아직 추여탕거리는 안됐으니, 그럭저럭 바닷물에 온몸으로 적응하고 있는 셈이다.

이 미꾸라지가 미얀마에 온 지 벌써 만 9개월이 되었다. 그리고 지금, 막 사업의 첫 삽을 뜨고자 동분서주하는 신생 미얀마 사업장은 유난한 격동의 12월을 보내고 있다. 이런 와중에 소식지 담당자에게 일년을 마무리하는 의미에서 원고를 써 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미얀마 사업이 여전히 시작 단계에 있는 것을 생각하면, 내게는 12월이 마무리하는 달이 아니라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달이다. “아직 사업 시작도 못 했는데 벌써 1년이 다 되어가는구나!”라는 조급한 마음이 미꾸라지를 또 꿈틀거리게 한다. 그러나 막상 지난 9개월을 돌아보니 미친한 미꾸라지에게 참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다.

1년이라는 시간을 참 바쁘게, 열심히 보낸 것에 후회는 없지만, 과연 내가 세사에서 가장 값진 일이라는 ‘봉사활동’을 하면서 정작 나 자신은 행복했는가 하는 생각부터 해 본다. 나는 참 욕심이 많은 미꾸라지

다. 내 욕심 때문에 나는 미얀마 파견기간 동안 그다지 행복하지는 않았던 것 같다. 더구나 나는 내가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원칙주의자였다. JTS의 원칙에 어긋난다 싶으면 절대 타협하지 않으려고 했고, 그러다 보니 여러 가지 불만의 목소리를 들을 수밖에 없었다. 내 성격이 칼 같이, 얼음같이, 단호한 성격이었다면 이 고지식한 원칙주의도 별 문제가 없었겠지만, 워낙 세심한(이라 쓰고 ‘소심한’ 이라 읽는다) 성격이다 보니 결국 쌓이는 건 스트레스와 화, 서운함과 실망감이었다. 늘 철저하고 외롭게 고민하는 나날의 연속이었다. 책임자라는 자리는 생각보다 훨씬 어깨에 짊어지는 것이 많은 자리였고, 항상 더 넓고 길고 깊게 살펴야 하는 자리였다. 늘 두통이 동반했다.

그러나 이러한 고단함도 막상 마을에 가서 주민들을 만나고 나면 씻은 듯 사라진다.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왕복 10시간이 걸리는 먼 여정을 떠나도, 주민들의 환한 미소를 마주할 생각을 하면 그저 기쁨의 에너지와 무한한 행복만이, 머리끝까지 솟구친다. 혹시 주민들이 괜히 사업에 대한 기대감을 선불리 가지지는 않을까 염려되어, 아직 사업 여부에 관해 아무 것도 정해진 것이 없으며 단순히 답사를 왔을 뿐임을 재차 설명하고 확인해도, 마을 주민들은 그저 먼 길을 와 준 것만으로도 고맙다고 한다. 사업을 하지 못하게 되더라도 언제든지 개의치 말고 가족이라 생각하고 놀러 오라고 한다.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도, 너무 고맙다며 내 손을 꼭 쥐고 놓지 않으시는 어르신들의 찜찜한 마른 손에서 나는 더없이 따뜻하고 촉촉한 주민들의 마음을 느낄 수 있다. 뭐 하나라도 더 챙겨 주시려고 사과 한 알, 바나나 한 송이를 더 챙겨주시는 마을 할아버지, 할머니들의 고마움에 미꾸라지는 잠시 짠 소금물을 잊고 지낸다.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큰 행복이 온몸을 감싼다.

그러나 이러한 주민들의 고마움, 그리고 희망에 가득 찬 그들의 눈빛은 다시 미꾸라지를 바둥거리게 만든다. 빨리 사업을 선정해서 착수하고 싶은 내 조급함, 사업을 처음부터 끝까지 실수 없이 완벽하게 꾸

려 나가야겠다는 강박관념이 다시 나를 괴롭힌다. 그러나 미얀마 사람들 역시 어느 동남아 국가들처럼 매사 느긋하게 일을 처리하고, 절대 서두르지 않는 특성이 있다. 게다가 오랫동안 군부정권의 통치를 받아왔던 탓에 특히 공무원들이나 마을 이장들은 습사리 주관적으로 결정을 내리지 못한다. 늘 수동적이고 소극적이다. 항상 상위관청의 허가가 있어야 하고, 상위관청은 더 상위관청의 허가를 받아 오라고 한다. 결국 최상위관청까지 올라가면 요건에 맞지 않다고 갑자기 다른 방식과 형식의 것을 요구한다. 때로는 기다려 보라고 하고는 한 달이 지나도록 시간을 끌다가 결국 협조해 줄 수 없다고 한다. 누구도 그 사업에 대한 책임을 지고 싶지 않다는 뜻인데, 자기 시, 자기 군, 자기 나라의 가난한 주민들을 위한 사업임을 누차 설명해도 소용이 없다. 이러한 행정체계에서 속에 천불이 나는 사람은 오직 나뿐이요, 심지어는 현지 스텝들조차 이런 내 마음을 몰라줄 때는 화가 나기에 앞서 또다시 서운함과 실망감이 앞선다. 맥이 짝 끊겨 버린다.

이처럼 미얀마에서의 파견생활은 스트레스와 고민, 좌절과 행복이 서로 바통을 주고받는 그런 주기의 연속이다. 뭔가 잘 해보려고 하면 주위에서 도와주지 않고, 가까스로 주위의 힘을 얻어 이제 좀 해보겠다 싶으면 내부에서 일이 생긴다. 그러나 나는 잘 알고 있다. 결국 이러한 주기는 나의 마음이, 나의 기대가, 나의 습관과 나의 생각이 만들어 일으키는 것이며, 결국 나의 내부에서 발생해서 나를 괴롭히고 있는 것이다. 나는 매번 주변 탓을 하고 환경 탓을 하고, 미얀마 탓을 하지만, 미얀마는 그 모습 그 성격 그대로 그 자리에 있다. 그들은 그렇게 살아왔으며, 그들의 삶에 끼어든 것은 ‘빨리빨리’의 나라에서 온 욕심 많고 완벽을 추구하며 뭐든 원칙대로 조급하게 처리하려는 나, 미꾸라지 한 마리이다. 나 혼자 바쁘다가 나 혼자 화를 내고 나 혼자 실망하고 서운해 하다가 나 혼자 행복해 한다. 미꾸라지 한 마리가 짝 독도랑에나 살다가 갑자기 바다에 나와서는 왜 물이 짜냐고 고통스러워하고 꿈틀거리면서 불평해대는 꼴사나운 모양새다.



현지 자원봉사자 미미

미얀마에 처음 왔을 때 미얀마에서 오랫동안 활동을 한 다른 단체 책임자가 해 준 조언이 있다. 미얀마에서는 되는 것도 안 되는 것도 없다고. 그렇다. 되는가 싶다 보면 안 되고, 안 되는가 싶다 보면 그래도 꾸역꾸역 되고 있다. 내가 미얀마를, 주민들을, 현지 스텝들을 하루아침에 내 입맛대로 바꿀 수는 없는 노릇이다. 내가 바뀌어야 한다. 그러면서 내 중심을 잃지 않고, JTS의 중심을 잃지 않고 곳곳이 나가다 보면 현지 주민들도, 현지 스텝들도 JTS의 진심을 알아주고 JTS를 이해해 주며, JTS와 함께 해 줄 것이다.

2013년은, 조금은 느긋하게, 그리고 조금은 미얀마의 편에 서서 사업을 바라보고, 나를 돌아봐야겠다. 내가 행복해야 현지 스텝들도 행복하게 일을 할 수 있고, 미얀마 JTS의 프로젝트도 행복을 만들어 낼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그리고 이 미얀마에 온 미꾸라지는 1년 더 미얀마에 있기로 마음을 먹었다. 이러니저러니 해도, JTS 활동가로 봉사 활동하는 것이 더 없을 행복이었기 때문이다. 2013년은 미얀마에서 제일 행복한 외국 미꾸라지가 되는 것이 내 목표다.

*아빠 까바르는 'How are you?'라는 뜻의 인도네시아어입니다.

우바마을 전경



내 사랑 우바

- 인도네시아 우바 마을 관개수로 공사기

지난 4월 인도네시아로 파견된 김선욱 활동가가 소중한 인연을 찾았다고 하네요. 바로 인도네시아 '우바' 마을이 그 주인공인데요, 김선욱 활동가의 사랑 이야기, 함께 들어볼까요?

함께하고 글쓴이 인도네시아 JTS - 김선욱 활동가



우바 마을의 관개수로 공사 구간은 1.5km 이다. 우바 마을은 28개의 마을로 구성된 꼬또 땅아리의 속하는 인구 1,500명의 그나마 작은 마을이다. 인구가 타 마을에 비해 적고 거기서 거기겠지만 마을의 규모나 삶의 질(?)이 비교적 떨어지는 이유는 이 마을의 지형적 특성에서 찾을 수 있다. 꼬또 땅아리에서도 가장 저지대에 속하는 이 마을은 10월부터 시작되어 12월까지 혹은 1월까지 이어지는 우기 때 타 마을들의 물들이 물리는 지리적으로 약조건을 가졌다. 그때마다 삶의 터전인 가옥과 논이 침수가 빈번히 계속되어 아마 그런 이유에서 타 마을에 비해 덜 발달된 게 아닐까 생각된다.

나는 마을의 촌장하면 하얀 수영 길게 늘어뜨리고 맑고 깊은 눈을 가진 초로의 점잖은 중년을 떠올렸는데 우바 마을의 촌장은 나보다 8살이 적은 이십대 후반의 마을 청년이다. 싱가포르, 태국 등지에서 돈을 벌고 돌아왔다고 하는데, 그래서인지 농사만 짓고 살아온 순진

한 마을의 사람들과 달리 언변이 유창하고 태도가 좋지 않아서 처음에는 JTS의 도움이 필요하지 않은 줄 알았다. 그러나 매년 우기 때마다 가옥이 침수되어 적도에서 농사일 하시느라 얼굴이 까맣게 타고 여럿 주름진 얼굴을 가진 등이 제법 굵은 할머니의 도와 달라는 간곡한 청을 거절하고 싶지 않았다.

말이 1.5km 길이지 양쪽 수로의 길이를 합치면 무려 3km이다. 이 수로에 관개 수로를 설치한다. 관개 수로의 높이는 약 1m이고 폭이 약 40cm가 된다. 관개 수로를 높이 쌓으려면 기초를 튼튼히 해야 하는데 그것을 위해서는 항상 크고 무거운 돌이 필요하다. 그것을 시멘트로 차곡차곡 쌓는 작업은 쉽지 않다. 힘이 많이 든다. 공사를 4월 중순에 시작했는데 6월까지만 해도 정말 할 수 있을까 의문이 들었다. 우리는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자기 마을을 위한 일이므로 자원봉사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일이 정말 마을에 필요한 일이라면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일을 할 것이므로 그 일은 마을 공동 노동으로 하게 하며 대신 우리는 필요한 모든 재료를 시간에 맞게 필요량을 배달해준다.

그러나 아무리 자신들의 마을을 위해서 하는 것이라 해도 쉽지 않은 노동이다. 더군다나 8월, 9월은 라마

단, 르바란 명절이 있는 달이어서 일을 하지 않고, 11월과 12월 초는 비가 너무 많이 와 작업할 수로에 항상 물이 차서 정상적으로 일을 하기 쉽지 않다. 찾을 때마다 별 진전이 없는 상황을 보면서 사업의 성패를 떠나 안타까웠다. 사람들을 독려하고 싶었다.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생각한 끝에 현장 방문을 할 때마다 약속하지만 담배 2갑이라도 자비로 사줬다. 보통 10명 안팎으로 일하므로 많은 양은 아니지만 그래도 나도 무언가를 해주고 싶었다. 일도 같이 했지만 역할 분담이 딱 정해져 있어서 계속 곁도는 것 같았고, 나는 일을 하면 미친 듯이 하는데 이 사람들은 쉬엄쉬엄하니 왠지 사람들이 내게 감시당하는 듯 불편해 하는 것 같아 같이 일하고 싶은 마음을 누르고 잠깐 잠깐 도울 뿐이었다.

대신 자재가 필요하면 다른 일을 제쳐두고 우바 마을로 달려가서 필요 자재와 양을 확인하고 주문을 했다. 계속 필요한 돌, 시멘트, 모래 등은 떨어지지 않게 매일 자재상들과 만나서 배달에도 신경을 썼다. 비가 억수로 오면 수로에 물이 얼마나 차나 너무 궁급해서 밤에 위험하지만 조심조심 오토바이를 몰고 40분을 달려 수위를 확인했다. 너무 자주 가는 게 아닐까? 그래서 사람들이 부담을 느끼면 어떡하지 걱정도 했다. 그러기를 두달 반. 이제 그 1.5km의 마을길을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며 대부분의 마을 사람들과 인사를 한다. 인사가 너무 재미있다. 오토바이 클랙슨을 짧게 울려서 인사를 한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내게 웃음으로 인사를 해준다. 특히 할아버지, 할머니들에게는 난더 공손해진다. 그렇게 완고한 무슬림 시골의 할머니들이 이제는 꼬부랑 지팡이를 짚고 내게 다가와서 인도네시아 사투리로 말씀을 하시는데 그럴 때 기분이 너무 좋다. 마치 내가 이 사람들과 어떤 유대감을 형성하고 있다는 느낌이 든다. 예전에 내가 이방인이라고 느꼈다면 비록 짧은 기간이지만 그래도 많이 가까워진 것 같아서, 그래서 사람들이 JTS가 여기에 사업하러 온 사람들이 아니고 당신들이 필요하면 필요한 것을 도와주는 친구라고 혹시 이제는 아는 것은 아닐

까 하고 나름 혼자 기분에 취하기도 한다. 이제는 아이들과는 꽤 친해졌고 사춘기의 중고생들과 수줍게 손인사를 한다. 점심 때 들리면 같이 점심을 먹는다.

9월 22일부터 법인 설립 때문에 우바 마을 관개수로 사업을 인수인계하기 전까지 매일 아침 기도에 우바 마을 공사가 잘 되게 해달라는 바람을 가져보았다. 지금은 법인설립이 잘 되게 해달라고 주제가 바뀌었지만 내가 그 짧은 기간 동안 우바 마을에 쏟아부었던 사랑은 바뀌지 않은 것 같다. 무엇을 바라지 않았고 그냥 함께 일하고 싶었다. 어떤 때는 어린이, 어른 할 것 없이 그냥 뭐 달라는 게 많다. 그럴 때 싫어하는 마음을 내지 않고 그 이야기를 그냥 들어준다. 그리고 상황에 따라 안 된다고 단호하게 말할 수 있는 나를 본다. 내가 다른 사람을 돕는 것을 행복해 하는 것도 느끼게 되었다.

관개수로는 이제 400m 남았다. 두달 반 동안 많은 진전이 있었다. 마을 사람들의 하려는 의지의 결과인 것 같다. 비록 잠시지만 그 옆에 있어서 그 모습을 지켜볼 수 있어서 기쁘다. 물론 힘든 일도 많았다. 하지만 조금씩 전진하는 관개수로를 보며 마을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에 가슴이 뿌듯했다.

1년을 약속하고 시작한 해외 자원 봉사 활동이 이제 3개월 정도 남았다. 이제 내 기도는 인도네시아 법인 설립이다. 내년 3월 말 즈음에 내가 한국으로 돌아갈 때 법인 설립이 끝나고 우바 마을의 관개수로가 완공되는 모습을 보기를 희망하며 열심히 노력하겠다. JTS 활동을 시작하기 전, 회사 생활하면서 회사일에 그다지 재미를 느끼지 못했다. 하지만 이 일은 다르다. 조용히 맡은 일을 하는 편이던 내가 이 일만 시작하면 나도 모르게 목소리가 커지고 미친 듯이 일하고 다른 생각은 안하고 이 일에만 집중한다. 회사 생활하면서는 정말 못 느꼈던 일이다. 아바 이 일이 내 천성에 맞는 일인 것 같다. 그것을 찾아서 기쁘다. 설마 했는데 찾아서 기쁘다.



땅야학교 공사현장

캄보디아 주민들에게 새해 선물을!

캄보디아 JTS는 현재 라타나끼리 주 지역에서도 오지 중의 오지를 찾아가 활동 중입니다. 오지 마을 어린이들이 2013년 새해 선물로 학교를 받는다면 얼마나 기쁠까요? 지금부터 라타나끼리 주에서 열심히 준공 중인 타벵끄라움, 땅야, 웅찬 학교의 소식을 전해 드립니다.

함께하고 글쓴이 캄보디아 JTS - 박병수 활동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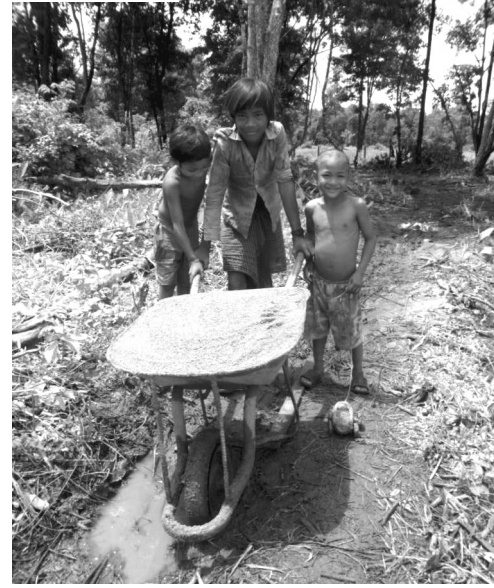
타뱅크라움학교 공사현장



오랜만에 가는 프놈펜 나들이. 사실은 업무 때문에 가는 것이지만 워낙 오랜만인지라 서울 구경 가는 시골이처럼 약간의 설렘이 있었습니다. 계획한 모든 업무를 마치고 남은 시간을 이용하여 조용한 카페를 찾아 들어갔습니다. 시원한 카페에 앉아 오랜만의 여유를 즐기고 있을 때 카페 안에서는 잔잔한 캐롤이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잠시 흘러나오는 캐롤을 흥얼거리다가 가만 생각해보니 아까부터 이어지는 캐롤들과 빨간 산타 모자를 쓰고 있는 종업원들까지……. 그제서야 이제 곧 크리스마스와 연말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한국의 연말 분위기는 아니었지만 캄보디아에도 그렇게 연말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지난 일 년을 돌아보면서 각 마을들의 이야기를 전해 드리겠습니다.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 없다. - 타뱅크라움 학교 타뱅크라움 학교는 다섯 마을이 함께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톰퐁퐁, 께공, 퍼양, 쟁싸이, 께병. 이 이름이 익숙해지기까지도 한참이 걸렸는데요. 이렇게 많은 마을 주민들이 모여 일하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우선 각 마을 사람들이 모여 학교에 나와 자원봉사 하는 날을 정했으나 마을마다 참여도가 제각각이지요. 그러다 보면 잘 참여하던 마을 주민들도 다른 마을 주민들과 비교하면서 안 나오는 경우도 다반사입니다. 이럴 때마다 주민들을 만나 이야기해보면 다들 그럴만한 이유가 있는지라 누군가를 비난할 수는 없답니다. 한번은 주민참여가 너무 저조하여 마을 주민들과 만나서 회의를 했습니다. 마을 주민들은 그 동안 학교건축에 참여하면서 느꼈던 것들을 한명, 한명 꺼내어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한동안 이야기를 나누다가 보니 주민들 스스로 학교의 필요성을 이야기하고 앞으로는 학교건축 자원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 하겠다는 결론을 내리고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참 훈훈한 마무리지요? 그 회의가 있고 다음날, 학교에 가보니 50명 쯤 되어 보이는 주민들이 나와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깜짝 놀라서 왜 이렇게 많이 나왔냐고 물어보니 다들 각오를 새롭게 다지기 위해서라나요? 사실 이렇게 많이 나온다고 일이 그만큼 진행 되는 것은 아니지만 왠지 모르게 기분은 좋더군요. 이것도 반짝하고 사라지는 호응들이지만 어쩔 수 없지요. 계속 주민들을 만나 이야기를 나누고 서로가 공감하는 수밖에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주민 참여

타뱅크라움 아이들



문제 말고도 유난히도 문제가 많았던 타뱅크라움 학교. 하지만, 이렇게 어려움이 많았던 만큼 완공 되면 더 뿌듯할 것 같습니다.

우리는 슈퍼우먼 - 땅아 학교 땅아 마을은 유난히도 여자들이 많습니다. 학교 건축이 아무래도 육체 노동이 많다보니 여자보다 남자들이 필요한 경우가 많은데요. 땅아 마을의 여자들은 성별을 떠나서 한 사람 몫을 충분히 하고 있습니다. 흙을 파서 교실 바닥에 채우는 작업이라든지 벽돌 나르기, 철근 배근 등 언제나 열심이지요. 마을에 방문했을 때 공사 현장 한 쪽에서 여성 주민 5~6명이 교실 바닥에 흙 채우기 작업이 한창이었습니다. 한 팀은 삽 또는 팽이로 흙은 담고 다른 팀은 그것을 옮기는 작업이었죠. 저도 돕겠다고 가방을 벗고 흙을 나르기 시작했습니다. 뜨거운 태양 아래에서 움직이는 것은 여간 힘든 게 아니었죠. 눈이 마주치면 힘든 내색은커녕 웃고 있는 마을 주민들. 이런 상황에서 먼저 돕겠다고 말해 놓고 중간에 그만둘 수가 없었습니다. 끝까지 마무리하고 돌아오는 차에 타셔야 한숨돌릴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힘든 일임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일하시는 주민들을 보면서 다시한번 되돌아보는 기쁨이 되었지요.

니었죠. 눈이 마주치면 힘든 내색은커녕 웃고 있는 마을 주민들. 이런 상황에서 먼저 돕겠다고 말해 놓고 중간에 그만둘 수가 없었습니다. 끝까지 마무리하고 돌아오는 차에 타셔야 한숨돌릴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힘든 일임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일하시는 주민들을 보면서 다시한번 되돌아보는 기쁨이 되었지요.

몽치면 살고 흠어지면 죽는다. - 웅찬 웅찬 마을은 공사 시작하기 전 걱정을 가장 많이 했던 마을이었습니다. 학교 지원을 가장 적극적으로 요청했던 마을이었지만 유일하게 강 건너편에 있었고 마을 주민들이 그리 많지가 않았지요. 다른 학교의 경우 공사 현장까지 자체 운송이 가능했지만 웅찬은 주민들이 직접 옮겨야만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만큼 할 일은 많은데 주민수가 적어서 잘할 수 있을까란 걱정이 있었지요. 하지만 공사가 시작되고 괜한 걱정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주민들은 자기가 나와 일하는 날이 아닌데도 공사현장에 나와 일을 하거나 자재운반에 적극적으로 참여했습니다. 모든 학교가 거의 같은 시기에 공사를 시작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진행속도가 빨랐습니다. 이런 분위기로 웅찬에 가는 날이면 오히려 제가 에너지를 받아오는 기분이었지요. 퐁퐁 뭉친 웅찬 마을 주민들. 참 멋있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세 학교의 주민들 모두 제각각의 과정을 거치면서 한걸음 한걸음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 속도가 비록 느릴지라도 멈추지 않고 말이지요. 아직 공사 마무리가 안 되었지만 모든 학교들이 끝까지 잘 만들어져서 주민 모두에게 가장 좋은 새해 선물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 JTS와 길벗이 함께하는 2012년 연말 거리모금 캠페인

“글쎄, 우리 지구촌 아이들의 엄마가 되어 주세요!”

JTS와 문화·예술인 사회봉사모임인 “길벗”이 함께 하는 연말 거리모금 행사가 지난 12월 15일(토)에 명동에서 진행되었습니다.

함께하고 글쎄이 편집부



JTS 홍보대사이신 한지민씨 외 인기 연예인 박진희, 박건형, 윤동환, 윤소이, 이재우, 임세미, 한정현씨, 영화배우 차중호씨, 드라마 작가 노희경씨, 가수 신궁씨와 몬스터V를 비롯하여 항상 거리모금 진행을 맡아주시는 방송인 김병조씨까지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셨습니다.

행사에 앞서 온·오프라인을 통해 직접 모금 활동에 참여할 자원봉사자들을 모집하였습니다. 다양한 사연을 통해 60여 분께서 신청해 주셨습니다. 어린 자녀들을 데리고 오신 부모님, 학생들과 함께 오신 선생님, 기차와 버스를 타고 먼 길을 온 중·고등학생도 있었습니다. 또한 한지민 씨 팬클럽에서도 많이 동참 해주셨습니다.

행사 전날 JTS 사무실에서 진행된 사전교육에서 만난 자원봉사자들의 모습은 정말 진지했습니다. JTS의 활동 내용과 모금이 필요한 이유와 방법을 경험하고, 모금 실습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즐거운

교육 시간을 함께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웃을 돕고자 하는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이렇게 많음을 새삼 확인할 수 있어서, 저희 JTS 봉사자들의 마음도 덩달아 따뜻해지는 하루였습니다.

그 결과 행사 당일 모두 정말 열심히, 간절한 마음으로 모금에 나섰습니다. 지나가는 시민 분들께 일일이 허리 굽혀 인사를 드리고, 팔이 떨어져라 JTS 하트 피켓을 높이 들고 모금에 참여해주실 것을 호소했습니다. 엄마 아빠를 따라온 어린이, 선생님과 함께 온 학생들이 올망졸망 모금함을 들고 있는 모습도 정말 사랑스러웠습니다.

방송인 분들도 역시 적극적으로 모금에 참여해주셨습니다. JTS 홍보대사인 한지민씨는 언제나처럼 씩씩하고 상냥한 모습으로 엄청난 인기를 모았고, JTS 거리모금 행사에 처음 참여하신 박진희씨도 직접 상점에도 들어가서 호소할 만큼 엄청난 열성을 보였습니다. 윤소이씨도 시민 분들과 일일이 사진을 찍어



주실 만큼 친절하신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뽀주리는 지구촌 아이들을 살리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뽀진 저희 참가자 모두에게도, 추웠지만 정말 따뜻하고 즐거운 하루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모금한 결과, 약 한 시간 동안 무려 6,841,720원을 모금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한지민 씨의 나눔 이야기를 담은 <우리 벌써 친구가 됐어요>를 출간한 출판사 북로그 컴퍼니에서도 1,000,000원을 쾌척해 주셔서, 총 7,841,720원이 모금되었습니다. 모금된 금액은 전액 북한과 제3세계의 어려운 이웃을 돕는 데 쓰이게 됩니다.

적극적으로 모금에 참여해주신 길벗 여러분, 그리고 자원봉사자 여러분, 또 함께 해주신 시민 여러분들 한 분 한 분께 모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사랑으로 올해도 우리의 이웃들이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함께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따뜻하고 복된 연말, 그리고 새해가 찾아오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홍보대사 한지민의 편지

글 한지민

12월 15일 연말 거리모금 행사가 끝난 후 한지민씨와 인터뷰 시간을 가졌습니다. 다음은 한지민씨의 인터뷰를 정리한 글입니다.

처음에 우연한 계기로 JTS 거리모금 행사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막상 모금에 나서보니 한 시간이 무척 짧게 느껴졌어요. 그리고 제가 한 시간 동안 소리쳐서 다른 분들에게 좋은 일에 참여할 수 있도록 알릴 수 있고 기회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이 제가 가진 직업의 특혜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도 기회를 몰라서 동참하지 못했는데 이런 기회에 우리 모두가 조금씩 마음을 모으면 정말 큰 도움이 될 수 있구나, 많은 사람에게 생명이 될 수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JTS 거리모금 행사는 어린이날과 크리스마스, 이렇게 일 년에 두 번 있는데 사실 일 년에 두 번이면 많지 않잖아요. 그래서 어떠한 일이 있어도 이 두 번은 꼭 참여를 하자, 제 자신에게 약속했어요.

처음 모금을 시작했을 때는 많은 분들이 이 돈이 어디에 쓰일까하는 의구심이나 쑥스러움에 모금함까지

잘 다가오지 못하셨어요. 그런데 매년 하면 할수록, 또 저희가 꾸준히 같은 자리에서 하다 보니 점점 더 많은 분들이 참여해주는 걸 볼 수 있어요. 그걸 보면서 다시 한 번 어떤 일이 있어도 이 두 번은 꼭 참여해야겠다고 다짐하게 돼요. 사실 저도 여기 와서 모금하면서 얻고 가는 게 굉장히 많아요. 늘 이 한 시간을 계기로 반성하게 되고, 같이 하시는 분들을 보면서 그동안 약해졌던 마음을 다잡는 치유의 시간이 되기도 해요. 저 자신에게도 좋은 시간이 되어서 참여하고 있습니다.

지구촌 어딘가에는 여전히 마실 것 없고 먹을 것 없어서 굶어죽는 아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인종이나 종교, 모든 경계를 떠나서 사람이 먹을 것이 없어 굶어 죽어간다는 것은 정말 마음 아픈, 있을 수 없는 현실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내가 무언가 많이 한다는 생각보다 작은 마음이 합쳐지면 굉장히 큰 사랑이 될 수 있다는 생각으로, 앞으로도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동참해주셨으면 합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돌아봐주시고 옆에 알려 주시면 더 많은 아이들의 생명을 살릴 수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해외활동가를 소개합니다

얼마 전 JTS 사무실로 단아한 얼굴의 한 여성분이 찾아오셨는데요, 바로 2011년 12월에 인도 JTS로 파견되었던 임지혜(27) 활동가였습니다! 임지혜 활동가에게 지난 일 년 동안 어떤 일이 있었을지, 또 인도 JTS의 민낯(?)은 어떤 모습일지 너무나 궁금해요. 함께 알아보까요?

Q. 인도로 가게 된 과정이 궁금해요.

JTS라는 단체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계기가 수자타 아카데미였어요. 나도 저곳에 가서 봉사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JTS에 왔더니 인도에 가려면 100일간 공동체 생활을 해야 한다고 해서 백일출가를 했어요. 다른 나라에서도 활동한다는 것도 JTS에 와서 알았고 처음부터 오로지 인도에 가기 위해서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Q. 실제로 인도에 가보니 어떠셨나요?

사람들이 다 험벗고 그런 열악한 환경을 상상했는데, 가서 보니까 그렇게 험벗고 그런 건 없었어요. 그런데 지내다보니까 그런 사람들이 보여요. 겉으로는 우리가 지

원하니까 옷도 신발도 다 있는데 그냥 그게 다인 거예요. 지원이 부족하거나 집안에 돈벌 사람이 없는 사람, 극빈자들이 마을을 다니다보면 보여요. 지붕도 없는 집에 혼자 사는 할머니도 계셨어요. 휴집인데 문도 지붕도 없어요. 가구도 없이 바닥에 깔 천도 없이 아궁이 하나만 있는 그런 집에 사시는 분도 있으세요.

Q. 주로 맡은 업무를 무엇이었나요?

주업무는 회계였어요. 보통 해외봉사 간다 하면 마을 나가서 사람들하고 부대끼면서 일하고 아이들이랑 어울리고 그런 것을 상상하잖아요. 그래서 회계업무를 맡았을 때는 밖에 못 나갈까봐 조금 실망도 했어요. 하지

만 오히려 일손이 부족할 때마다 지원을 나갈 수 있어서 결과적으로는 다양하게 활동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어요. 마을도 나가고 병원도 돕고 아이들도 씻기고 학교에서 수업도 하고 여러 가지를 해볼 수 있었죠.

Q. 활동 중 기억에 남는 일이 있다면요?

제가 인도에 간 초반에 '홀리'라는 인도의 새해맞이 행사가 있었어요. 한국 설날 같은 명절 축제인데 1, 2주 동안 인도 전역에서 색 파우더를 온몸에 뿌리면서 장난치고 맛있는 거 먹으면서 잔치하고 그래요. 그럴 때 극빈자들은 오히려 더 외로울 수 있다고 해서 마을에 갔었어요. 바로 옆집에서 잔치하고 놓고 있는데 혼자 사는 할머니는 쓸쓸하게 계시는 거예요. 마을 사람들이 도와주긴 하는데 그래도 외롭죠. 또 어머니가 정신지체인데 갓난아이가 다섯 명이 있는 집도 있었어요. 그런 아이들은 명절에도 제대로 즐기지 못하죠. 그런 분들께 카스타드 오일이라고 한국에서 식용유처럼 쓰는 기름이랑 밀가루같은 조그만 것들을 챙겨 드렸어요. 제가 가장 초반에 했던 마을 일인데 기억에 많이 남아요.

Q. 수자타 아카데미에서 있었던 일도 궁금해요.

수자타 아카데미에서는 한국어나 불교를 가르치지 않아요. 인도 정부에서 정한 커리큘럼을 시행하고 있지요. 수학, 과학같은 과목들은 현지에서 외부 강사를 초빙하는데, 그분들도 교통비 정도만 받으시고 봉사해 주세요. 그렇지만 한국어의 인기가 높아져서 방학 동안 한국어 교육을 했어요. 학생들도 한국인 스텝들과 생활하니까 한국어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아요. 수업 시작할 때부터 끝날 때까지 집중력이 장난이 아니에요. 칠판에 적은 거 하나도 놓치지 않고 다 받아 적으려고 모르는 건 무조건 물어보고 수업 시간이 끝나도 더 하자고 하기도 해요. 마주칠 때마다 시스터, 브라더, 부르면서 무조건 한국어 시간에 배운 말을 하려고 해요.

한번은 제가 '똥똥해', '날씬해'라는 말을 가르쳐줬더니 한국인 관광객을 보면 장난친다고 무조건 "똥똥해!" 이래요. 관광객 분들은 영문도 모르고 당황해 하시죠. 아이들이 장난기가 많아요. 또 수업이 아니더라도 종례할 때 한 문장씩 가르쳐줘서 웬만한 말은 해요. 유치원에서는 액션송이라고 해서 한국 동요에 힌디어 가사를 붙여서 가르쳐줬더니, 나중에는 한국어로 들어도 음도 뜻도 아니까 쉽게 따라해요.

Q. 활동하면서 힘든 점은 없으셨나요?

엄청 더워요. 날씨 때문에 가장 힘들었어요. 더우면 예민해지기도 하지만 날씨 자체만으로도 힘들어요. 한창 더울 때는 60도까지 올라가는데 실내도 너무 뜨거워서 들어갈 수 없어요 숨 막혀서 방 안에서 못 자요 여름이면 다같이 옥상 가서 자는데 물을 완전히 뒤집어쓰고 자요. 그래도 두세 시간 지나면 말라서 숨이 헉 막히고 눈이 떠져요. 출구없는 한증막이에요. 그럴 때는 학교도 운영을 못하고 밖에 나가도 사람이 없어요. 인도 사람들도 힘들어 해요. 큰 시내에 나가도 가게 문은 열려있는데 사람은 다 쓰러져 있어요. 뭐 하나 사려면 깨워서 사야 해요.

한국 음식도 많이 먹고 싶어요. 성지순례 때 놓고 가신 반찬을 아껴먹어도 여름되면 다 떨어져서 그때부터는 감자와 양파만 먹어요. 고추장, 된장도 없고 외국 간장만 팔아서 간장국만 먹어요. 특히 김치가 먹고 싶은데 양배추로는 그 맛이 안 나오. 배추를 심어봤는데 이번에 싹이 조금 났어요.

Q. 현재 동계소와리는 어떤 모습인지 궁금해요.

교육받지 못한 천민이나 가난한 양민이 대부분이라 일을 구하기 어렵고 몸이 재산이에요. 소작농으로 종일 농사를 짓거나 돌 깨는 일을 해서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살았는데, 그나마도 자격 받은 사람만 할 수 있게 바뀌어서 못하게 되었어요. 풀리라고 해서 역에 가서 짐꾼으로 10루피, 20루피 받기도 해요. 그래서 지금 추진하는 것이 부녀자 교육이에요. 여성 차별도 심하고 결혼도 일찍 해서 정말 못 배우거든요. 기술이 있으면 돈을 벌 수 있으니까, 얼마 전에 재봉반을 시작했어요. 아이들의 경우 공부에 대한 욕심이나 열망이 많아진 점이 변화하고 있는 점이에요. 한국처럼 비싸지는 않지만 학원같은 곳도 있어요. 아이들이 한 자라도 더 배우고 대학에도 가려고 해요.

Q. 해외봉사를 생각하는 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해외봉사를 갈 때 저 개인적으로는 부모님이나 다른 사람에게 의지하는 마음을 극복하고 스스로 성장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다녀오니 이제 무엇이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인생에 있어 정말 뜻 깊고 보람 있는 경험이었습니다.

신규 해외활동가를 소개합니다

저희 JTS 해외사업장에 기본 소식이 있었습니다. 바로 새로운 식구를 맞이한 것인데, 지난 11월에는 필리핀 JTS로 임선호 활동가가, 12월에는 인도 JTS로 주연우 활동가가 파견되었습니다. 이분들께 초심자의 행운이 함께하기를, 독자 여러분들도 함께 기도해 주세요.



임선호 활동가

임선호(55) 활동가는 원래 경찰관이셨습니다. 올해 명예 퇴직 후 JTS에서 새로운 활동을 시작하셨죠. 2001년부터 JTS 후원을 시작하셨고, 직장에서도 20년 넘게 봉사 모임을 통하여 가정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을 후원해 오셨다고 합니다.

Q. JTS와 어떻게 인연을 맺게 되셨나요?

2001년 1월 아내의 권유로 JTS 후원을 시작했습니다. 북한 돕기에 관심이 많았어요. 직장에서는 따로 봉사 모임을 조직해서 가정 형편이 어려운 청소년을 후원했어요. 이제 다 커서 복지시설에서 선생님이로 근무하는 아이도 있어요. 그 친구에게 이번에 봉사활동 간다고 하니 더운 나라로 간다고 지금 입고 있는 상의하고

지갑을 선물해주어서 기억에 남습니다.

Q. 필리핀에서 어떻게 활동하고 싶으신가요?

제가 무언가를 도와주기보다는 많은 것을 배우고 싶습니다. 필리핀은 주민 간의 갈등이 있는 곳인데, 서로 다른 세력들이 만나서 평화를 이룬 모습을 보고 싶어요. 또 개인적으로는 직장에서나 사회적인 성공을 내려놓고 다시 한 번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면서 봉사와 헌신의 삶을 종합적인 차원에서 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했어요.

Q. 가족 분들의 걱정은 없으신가요?

가족들은 적극적으로 찬성했어요. 아내 역시 환경운동을 하며 사회적인 일에 관심이 많아요. 오히려 직장동료나 주변사람들이 많이 말렸어요. 취직하기도 힘든데 좋은 직장을 왜 그만 두느냐고요. 하지만 의미있고 가치있는 일을 찾아야겠다고 생각해서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Q. 독자 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어차피 JTS 소식을 보시는 분들은 사회에 기여하고 남을 배려하고 베풀고 살아가시는 분들이라 제가 굳이 다른 말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주변 분들께도 많이 권유해서 따뜻한 세상 아름다운 세상을 만드는데 한 사람이라도 더 동참시켰으면 합니다.



주연우 활동가

Q. JTS와 어떻게 인연을 맺게 되셨나요?

JTS에 오기 전 사회 생활하면서 간간히 봉사활동을 한 적이 있는데, 그때의 뿌듯한 기분이 잊혀지지 않았어요. 제가 본격적으로 봉사활동을 하고 싶다고 했더니 부모님께서 JTS라는 단체가 있다고 소개해주셨어요. 처음부터 해외봉사를 하려고 한 건 아니고 JTS에 와서 해외 사정을 알게 되면서 마음먹게 되었어요. 못 먹어서 굶어죽고 구걸도 할 수 없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 내 일은 아니지만 뭔가 억울하다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사람으로서 누려야할 기본적인 권리도 없다는 것이 이상하고 억울하게 느껴졌어요. 저는 원래 건설 장비를 운전하는 일을 하고 있는데, 제가 가진 기술이 꼭 필요하게 잘 쓰일 수 있는 곳에 갈 수 있어서 너무 좋아요.

Q. 해외봉사를 간다고 했을 때 가족이나 주변 분들 반응은 어떠셨나요?

부모님께서도 원래 봉사활동을 많이 하시는 분이셔서 적극적으로 지지해주셨어요. 제가 올해 서른넷이 되기 때문에 주변 분들은 결혼은 언제 하느냐 등 조금 이상하게 보시기도 하죠. 하지만 저는 그게 더 편한 것 같아요. 지금 아무 것도 없으니까 오히려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Q. 국내 사무실에서도 오랫동안 활동하셨는데 그동안 어떠셨는지요?

정말 제가 해보고 싶었던 일을 했던 것 같아요. 또 건설 쪽에는 젊은 사람이 없어서 늘 아버지뻘 되는 어른들과 일했는데, JTS에 와서 또래 친구들을 만나고 일했던 것도 정말 소중한 즐거움의 시간이었어요.

Q. 해외봉사를 가기 전 각오 한 마디 부탁드립니다.

제가 뭘 하겠다는 거창한 마음가짐보다는, 필요한 곳에 잘 쓰였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원래 긍정적인 생각을 많이 하는 편이긴 하지만, 갔다 오게 되면 더 긍정적으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동일본 대지진 긴급구호 답방 이야기

2011년 3월 11일 강도 9.0의 대지진과 쓰나미가 일본 동북지방을 강타했습니다. 이로 인해 5만 명 이상이 사망하거나 실종되었으며, 50만 명 이상의 이재민이 발생하였습니다.

글쓴이 편집부

당시 JTS는 피해 지역인 이와테현, 이바라기현 245개 대피소에 컨테이너 9대 분의 식량과 생필품 등 30만 볼 상당의 구호물품을 지원하였습니다.

지난 12월 14일(금), 당시 긴급구호 물품 전달에 함께 협조하여 활동한 일본 '부락해방동맹' 단체 활동가 7분께서 찾아와 감사인사와 함께 구호활동 결과를 JTS와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대지진 이후 1년 9개월, 피나는 노력으로 구호·복구사업을 벌이고 있지만 실질적인 재건은 이제부터 시작이라고 합니다. 폐허가 된 땅, 건물 높이만큼 쌓인 쓰레기산 등 물질적인 재건도 필요하지만, 부모를 잃은 어린이들, 이웃을 잃은 사람들에게는 정신적인 치유가 무엇보다 절실할 것입니다.

일렬로 늘어선 임시 주거 공간에 배경되어 고립되어 가

는 사람들을 위하여, 부락해방동맹은 집집마다 킷마루를 설치했습니다. 햇볕이 따뜻한 낮 시간이면 사람들은 킷마루에 나와 옆집 사람들과 대화하며, 새로운 이웃을 만나고 다시금 공동체를 형성해가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두유를 잘 먹지 않는 일본 사람들에게 긴급구호 식량으로 JTS 두유를 전달하기 위해 시음회를 한 이야기, JTS가 전달한 물품 중 건전지 없이 사용할 수 있는 손전등이 가장 인기 있었다는 이야기 등 흥미로운 이야기도 많이 들을 수 있었습니다.

국가, 민족, 종교, 사상에 관계없이 어려운 이웃을 돕는 것이 JTS의 이념입니다. 앞으로도 JTS는 지구촌 어디에서나 이웃의 손을 맞잡고 함께 나아갈 것입니다. 힘든 여정을 무릅쓰고 한국까지 와주신 일본 '부락해방동맹' 단체에도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어떤 소식을 전해 왔을까요?
나라별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India 인도



스웨터를 받고 "감사합니다" 인사하는 4학년 A반 학생들

1. 추운 날씨도 문제없어요!! - 11월 초 동절기 물품 분배

인도가 더운 나라인데 무슨 추운 날씨냐구요? 영하까지 내려가는 날씨는 아니지만 온기 하나 없는 이곳의 겨울은 영하20도를 넘어가는 추위보다 더 냉담합니다. 게다가 매일 아침 안개까지 끼면 멀리서 학교에 오는 아이들이 제 시간에 맞춰 오기란 힘든 일이지요. 그런 아이들을 위해서 매년 스웨터와 양말, 구두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춥다고 학교에 오지 못하는 일은 없었지요? 따뜻한 겨울을 만들어주신 한국 후원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1등하기 위해 있는 힘껏 달리고 있는 유치원생들

2. 11월은 푸르구나~ 우리들은 자란다~ - 11월 5일 ~ 11월 9일 어린이날 행사 주간

수자타아카데미 체육대회, 달리기대회, 반별 장기자랑, 유치원 학생 달리기대회, 액션송 콘테스트, "Every child is special"이라는 슬로건으로 5일 동안 어린이날 주간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거의 한 달 동안 준비한 장기자랑과 액션송 콘테스트는 아이들의 끼를 볼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1등한 팀은 어린이날 행사 당일 공연을 할 수 있는 특권이 주어졌습니다. 행사 공연 때는 댄스반 선생님의 공연과, 한국인 활동가들이 준비한 연극 "돼지삼형제"가 큰 인기를 얻었습니다. 맛있는 것도 먹고, 신나게 놀고... 매일매일 어린이날이었으면 좋겠다며 행복해하는 우리 아이들의 모습이 사랑스럽습니다.



부모들에게 그동안 배운 댄스실력을 선보이는 작은 콘서트 모습

3. 행복한 마을 만들기! 엄마, 아빠 함께해요. - 11월 29일 ~ 12월 31일 행복한 마을 만들기 캠페인

"지금 우리 마을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아이들이 학교에 가지 않는다, 구걸하러 간다, 어른들이 술을 많이 마신다" 수자타아카데미 바로 옆 마을인 두르가푸르와 자그디스푸르 학생과 학부모 회의에서 나온 내용들입니다. 마을의 문제에 대해 서로 이야기하고 해결책을 찾아나가는 "행복한 마을 만들기" 캠페인을 가꾼 두 개 마을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두 개 마을의 가장 큰 문제는 아이들이 구걸하러 가느라고 학교에 결석하는 것인데요, 올해부터 두 마을 아이들을 위해 방과후 댄스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특별히 거리캠페인과 마을주민회의 그리고 그 댄스교실에서 배운 실력을 부모들에게 보여주는 작은 콘서트를 열었습니다. 아이들이 구걸하지 않기를 다짐하듯 부모님들도 학교에 매일 보내기를 다짐하며 함께 즐거운 시간을 가졌습니다.



마을유치원 핸드펀프 플랫폼을 정비하고 있는 모습

4. 극빈자 구호 - 쌀에 마음을 담아

마을 사업 중에 극빈자 구호가 있습니다. 1년에 4번에 이루어지며, 쌀5kg, 달걀 5kg, 기름1병 이렇게 나누어 줍니다. 한 마을에 2~3가구 정도이며 생계가 어려워 우신 분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직접 포장하여 차에 싣고 가정을 방문하여 조심스럽게 구호품을 드립니다. 이 작은 쌀이 마을 분들에게 조금의 힘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5. 마을 쉬람단 - SP 핸드펀프 플랫폼 쉬람단 진행 (12월 21일)

마을에 불편한 사항이 있으면 접수를 받은 후 답사를 하고 공사를 진행합니다. JTS에서 자재를 제공하면 마을에서는 사람들을 꾸려 일을 진행합니다. 마을 사람들과 같이 공사를 하면서 점심도 같이 먹으며 마을이 조금 더 발전하고 화합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 나갑니다. 플랫폼이 깨지고 낡아서 항상 불편했던 이곳, 이제는 편하고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게 되어 JTS 또한 기쁩니다.

Philippine 필리핀



현지 학교 선생님과 아이들

1. JTS 센터에서 미니 도서관 운영

지난 11월 10일 JTS 센터에서 미니 도서관을 개관하였습니다. JTS 스텝 미오의 고등학생 딸과 친구 두 명이 자원 봉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매주 토요일 오전 8시부터 11시까지 실리폰의 어린이들 20여명을 초대하여 동화책을 읽어주고 다양한 놀이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시골 마을 실리폰의 JTS 센터 도서관에서 동화책을 읽는 소리가 아주 아름답게 들리는 것 같습니다.



JTS 시범 농장에 현지 교사가 바나나 나무를 심는 모습

2. 교복 지원을 위한 학교 방문

필리핀 JTS 이원주 대표님께서 JTS 후원 학교에 교복을 제작·후원해 주셨습니다. 체크무늬로 새롭게 디자인한 교복은 7개 학교 총 1,000명 학생에게 분배되었습니다. 이원주 대표님의 변함없는 정성에 감사드립니다. 교복 분배 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11월 7일 미까실리, 발루드 / 11월 8일 블루안 / 11월 9일 파곰팡 / 11월 20-21일 사라와곤 / 11월 22-23일 키다마 / 11월 29일 바갈랑잇

3. 의복 지원을 위한 사전 조사

한국에서 후원해 주신 의복을 지원하기 위해 만타부와 바갈랑잇 두 개 마을에 각 두 차례 방문하였습니다. 1차 방문 때 의복 지원에 관한 계획을 공유하고 분배 방법에 관해 주민회의를 하였습니다. 주민들은 한 벌에 1페소(27원)로 구입하여 학교 기금으로 사용하겠다고 하였습니다. 2차 방문 때는 가구별 주민 신상카드를 작성하였습니다. 2013년 1월 둘째 주에 3차 방문해서 옷을 분배하고 마을 잔치를 할 계획입니다. 후원해 주신 옷 정성껏 분배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4. 블루안 1박 2일 나무 심기 캠프

작년에 이어 올해도 학교에 과일 나무 묘목을 지원하였습니다. 이번에는 학교뿐만 아니라 마을 주민들에게 가구당 1그루씩 지원하여 집 옆에도 심도록 하였습니다. 이곳의 대표적인 열대 과일인 마랑, 난소네, 람부탄을 각각 50그루씩 총 150그루 지원하였습니다.

단순히 나무를 지원해서 심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마을 주민, 학생, 교사들이 함께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진행하였습니다. 나무 심기의 중요성에 대해 교사가 학생, 주민을 대상으로 강의를 하였습니다. 7명씩 18개로 팀을 나누고 크레파스와 도화지를 분배하여 그림 그리기 대회도 하였습니다. '오늘 심은 나무 묘목이 내일의 미래가 된다.' 라는 주제로 난생 처음 협동화를 그리는 주민과 학생들의 모습이 아주 인상적이었습니다.

오후에는 캠프의 하이라이트인 캠프 피아어를 하였습니다. 마을에서 준비한 촛극, 노래 등 다양한 장기들이 이어졌습니다. 다음날 아침 주민들에게는 신청서를 받은 뒤 나무를 분배하였고, 그 외는 학교 부지에 학생, 주민, 교사, JTS 활동가가 함께 나무를 심었습니다. 전날 밤에 내린 비로 흙이 촉촉하여 나무를 심기에 안성맞춤이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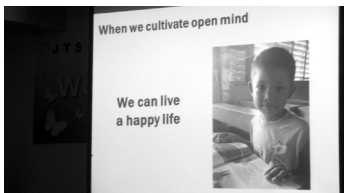
5년 뒤의 블루안을 상상하며 오늘의 작은 나무 묘목이 블루안의 미래가 되기를 기원해봅니다.



블루안 나무심기 행사 후

5. 2012년 두 번째 교사 워크숍

2012년 12월 13일부터 15일까지 JTS 센터에서 교사 워크숍을 개최하였습니다. 다물록의 6개 학교 19명의 교사가 참석하였습니다. 50여일 전부터 교사들로 준비팀을 결성하여 사전 모임을 진행하였습니다. 사실상 교사들과 함께 워크숍을 준비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진행된 워크숍은 19명의 참가자 외에 마닐라에서 6명, 요리 3명, JTS 민다나오 활동가 6명 등의 도움으로 성공리에 마칠 수 있었습니다.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교사워크숍 비전 공유 중



Cambodia 캄보디아

1. 8개 학교 문구류 지원

11/14~21 -> 그 동안 학교건축 지원했던 학교를 대상으로 문구류(연필, 공책, 볼펜, 자, 미니보드, 지우개, 필통)를 지원했으며 학교운영상황을 점검했습니다.

2. 본부 박지나 대표님 모니터링 방문

12/19~23 -> JTS 대표님께서 현장에 방문하여 진행상황을 점검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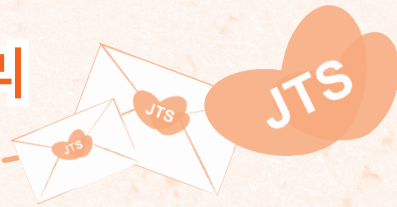
정정합니다

지난 11, 12월호 필리핀 소식에서 사진 설명이 잘못되었습니다. 첫 번째 사진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1. 블루안에서 동화책 읽어주기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모습입니다.
2. 신축 학교 건축을 진행하는 모습입니다.
3. 학교 신축 후보지 답사 때 JTS와 마을 주민들이 회의하는 모습입니다.
4. 다물록 프로젝트 평가 워크숍을 진행하는 모습입니다.

독자 여러분께 불편을 끼쳐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후원인의 소리



소액이지만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었으면 합니다.
-박선홍-

늘 힘내시고 건강하세요. 몸으로 실천하지 못해 죄송합니다.
-김덕정-

동전을 모은 저금통에서 나온 작은 돈이지만 북한의 동생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었으면 합니다.
-유지연-

애들아~ 함께 만나는 그날까지 건강하게 잘 지내아해~
-엄동환-

딸아이 대학합격에 대한 감사함을 회향합니다.
-유재운-

아이와 의견차이로 많이 힘들어요 더불어 서로를 많이 이해할 수 있기를 ...
-이미경-

아내의 기일 2주년에 제를 올리는 마음으로 작은 금액이나마 후원을 합니다.
-양호영-

날씨가 많이 추워지네요^^ 큰일 하시는 JTS자원봉사자님들 모두 건강하세요^^
-김경미-

매일천원씩 수능100일 기도금액을 여러 이웃들과 나누고자 합니다.
-권외정-

영유아 분유와 의료지원비로 써 주세요.
-성미란-

좋은 일에 작은 보탬이 되고 싶습니다.
-양태영-

감사합니다 부처님. 아미타불
-이미경-

필요한 곳에 요긴한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김승범-

도움이 필요한 모든 이들에게 잘 쓰이길 바랍니다.
-엄태환-

후원 할 수 있는 공간 마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임현정-

세상의 가난한 이에게 작은 도움이나마 되었으면 합니다.
-김승화-

* 2012년도 연말정산용 기부금영수증 발급안내

2012년 한해 한국JTS를 통해 사랑을 나누어 주신 모든 후원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후원자님들의 관심과 참여로 제3세계의 어려운 이웃들에게 내일의 희망을 밝혀줄 수 있었습니다. 다가오는 새해에도 함께하는 아름다운 세상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후원 부탁드립니다.

■ **발급대상** 후원자명, 주민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등 기부금영수증 발급에 필요한 개인정보가 정확하게 기재되어 있는 한국JTS 후원회원 개인 및 법인

■ **발급기준** 2012년 1월 1일 ~ 12월 31일 사이의 한국JTS 정기/일시/특별 후원금 납부 내역

■ **후원자용 기부금영수증 온라인 발급 방법**

1. 국세청 홈페이지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를 이용한 발급 (후원자 본인의 공인인증서 필요)

가. 서비스 개시일 : 2013년 1월 15일 (화)

나.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www.yesone.go.kr)에 접속하여 발급 받습니다.

2. 한국JTS 홈페이지에서 발급

가. 서비스 기간 : 2013년 1월 7일 (월) ~ 3월 31일 (일)

나. 기부금영수증 발급 방법

1) 2012년 3월 이후에 새로 만든 후원회원 아이디가 있다면

① 한국JTS 홈페이지(www.jts.or.kr)에서 “기부금영수증 온라인 발급” 버튼 클릭

②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후원회원 로그인

③ 귀속연도를 2012년으로 맞추고 “조회” 버튼을 클릭

④ “영수증 출력하기”를 클릭하여 영수증 인쇄

2) 후원회원 아이디가 없다면

한국제이티에스 홈페이지 “알림터”의 “후원회원 아이디 없이 기부금영수증 발급 받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참고하세요!**

- 기부금영수증은 원칙적으로 등록된 후원자 본인의 명의로 발급되는 것이며, 후원자가 소득자의 기본공제 대상이 되는 부양가족(소득이 없는 직계 존비속)에 해당되는 경우(소득세법 제50조 제1항) 후원자 명의의 기부금영수증도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 기부금영수증 발급 기간에는 문의전화량이 많아 통화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나 한국제이티에스 홈페이지의 기부금영수증 온라인 발급을 이용하시면 빠르고 편리하게 기부금영수증을 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새나눔회원 명단이 사라집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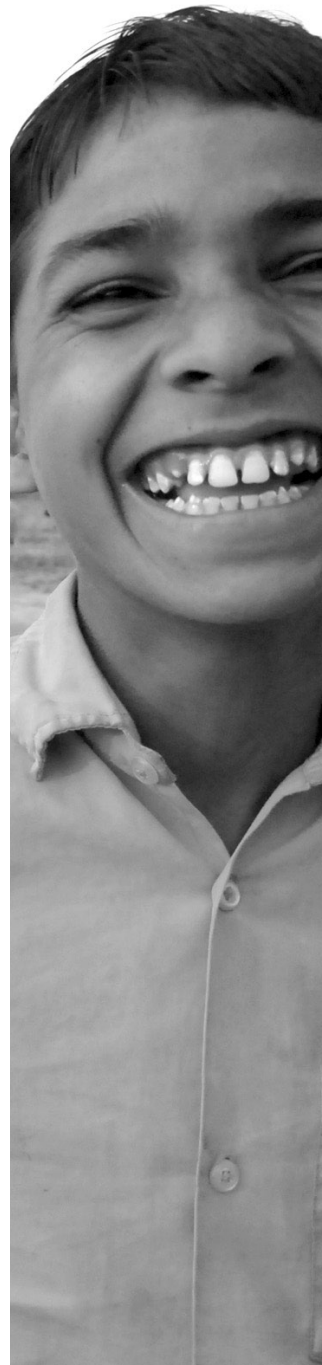
후원자 증가와 소식지 지면부족, 회원번호 노출로 인한 정보유출 우려로 2013년 신년호부터는 신규 정기후원자 명단을 소식지에 실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한국JTS 홈페이지(www.jts.or.kr)에 후원회원으로 로그인하시면, 언제든지 본인의 후원내역을 편리하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항상 따뜻한 관심에 감사드리며, 좋은 소식지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해외JTS 후원금

2012년 10월 01일 - 2012년 11월 30일

후원 문의전화 02-587-8995

장철호-컴퓨터아동기 1,000,000	미국JTS 10월	인도후원금 £325
전수연 30,000	송호성 \$30	변호경(함부르크) £290
전해성 100,000	김원태 \$30	김선희(뒤셀도르프) £250
장구남영가남 극락왕생	김순미 \$50	김현진(뒤셀도르프) £10
발원 100,000	김숙현 \$60	함부르크 신도단체 £164
정현승 50,000	장영호 \$300	전미자 £174
정금래 50,000	박숙현 \$100	박길순 £40
정만월 50,000	무주상 \$20	박영희 £300
정민희 500,000	김미경 \$100	완현신도 일동 £500
장백기 50,000	박현수 \$120	배형욱 £1,500
정순남 70,000	Linda H Davies \$50	이영숙 £100
정은경 100,000	Joe H Ha & Hyesook Ha \$60	신재숙(Fr.) £168.48
장정숙 10,000	고시유 & 고인자 \$100	나유신(베를린) £260
장진권 100,000	Freud Poe Park \$120	박남숙(뒤셀도르프) £100
장평화 90,000	윤영수 \$100	이어진(뒤셀도르프) £10
정필자 50,000	최하나 \$100	
조현식 50,000	차지근 \$180	필리핀 JTS
차지민 100,000	한해진 \$100	배명숙 \$2,439
천형준 50,000	이귀겸 \$100	
하지민 20,000	이동영 \$300	시드니 JTS
한승평살레 26,850	정승자 \$100	황은영 \$100
해피빈 154,600	정수길/홍희선 \$50	장성현 \$18
홍경미 50,000	Moonhee Lee Klip \$100	박은정 \$26
홍영식 100,100	하경순 \$500	김희정 \$20
홍명익 170,000	하경순 \$1,500.00	박보현 \$34
홍승우 10,000	마이클양 \$31	김해련 \$50
황성민 5,000	김순미 \$50	정성구 \$20
황주영 120,000	이승은 \$100	배영재 \$32.40
	김동서, 나은영 \$100	이재화 \$10
	이귀겸 \$100	이연주 \$100
필리핀	조성원 \$285.04	김기모 \$40
김미정 50,000	이영숙 \$1,000.00	김기연 \$26
김민철 30,000	한해진 \$200	오지훈 \$10
김산 10,000	이동영 \$300	
김승민 100,000	최만성 \$20	독일 JTS
김승희 30,000	박경배 \$80	김선희(뒤셀도르프) £410
나경주 50,000	진영순 왕생극락 \$100	최순진(뒤셀도르프) £390
박남희 10,000	박승음 \$30	박남숙(뒤셀도르프) £60
산성기2대학교-도서관 500,000		이은희(뒤셀도르프) £210
아이지예듀케이션 50,000	독일 JTS	임진선(뒤셀도르프) £100
윤은숙 200,000	김선희(뒤셀도르프) £410	오정미(뒤셀도르프) £50
이미경 100,000	최순진(뒤셀도르프) £390	한영호(뮌헨) £1300
이마옥 250,000	박영일 연옥 \$100	김해순(뒤셀도르프) £1,200
이소민 250,000	이복희 \$100	Alexander Philipp
이영희 50,000	권미경 \$500	
이정환 50,000	최경숙 \$30	
장백기 50,000	박태현 \$30	
	김순미 \$50	
	한해선 한윤홍 \$100	
	천시환 \$500	
	이지훈 \$60	
	전성연 \$30	
	민윤기 \$100	
	무주상 \$50	
	김명 \$100	



나눔저금통 현황 2012년 10월 01일 - 2012년 11월 30일

후원 문의전화 02-587-8995

♣ 나눔 저금통을 보내주시는 분의 성명을 식별할 수 없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저금통에 성명을 네임펜이나 볼펜 등으로 명확하게 적어서 보내주시면 소식지에 실을 때 도움이 되겠습니다.

광주

일식집기매탕 13,380 제75군사우체국 34,510

구미

구건모 85,860 송애주 22,280 허혜남 44,900

달서

김영배 36,250 윤여영 16,620 이유진 25,650 이종석 27,230

대구

김나영 28,560 강준우 105,320 구미북성농협금오지점 36,230 권오채, 영정희 107,520 김지철 38,100 무명 53,400 무명 16,360 무명 24,980 박미숙 17,700 박임숙 10,510 박준영, 박민아 39,960 신연화 50,540 영정희, 권오채 70,600 이마트마일리지 7,210 이승연 41,550 이재민 75,960 이재웅 74,800 임금실 52,810 임금실 54,050 장영우, 장준우 12,520 장순자 16,560 지산동열린약국 31,090 최정례 39,980

대전

금송농원 284,730 김중수 31,840 무명 19,700 무명 22,250 무명 12,740 송연수 12,630 심재한 29,850 윤영희 31,630 이봉길 34,800 정경수 15,560 정훈경 48,350 차현주 1,700혜룬 31,470 혜룬 33,720 혜룬 40,540 홍철아 18,350

대전부사

김대웅 29,680 김병순 45,900 김운경 18,520 무명 21,530 민틀레의료생활법동점 11,700 박미진 38,180 박종갑 20,170 박진영 72,430 박찬영, 진영, 예진 377,930 보부상마트 6,640 보부상마트 15,170 보부상마트 7,210 보부상마트 15,760 손호영 16,420 윤광자 27,760

동래

강은주 53,280 무명 100,560 무명 25,070 무명 150,200 배명화 24,260 사직여중 60,470 사직여중 52,390 오수영 9,670 윤갑연 6,270 이순옥 32,000 정은숙 21,990 조수민 13,650 채고은 6,490 최태경 6,300

마산

김래엽 34,460 무명 115,990 문진영 21,760 박학제 13,700 사단 46,980 사병찬 19,180 천영희 42,460 최동선 15,510 최유정 17,330 황원주 92,350

목포

송선옥 67,540

서울

권혜경 24,270 김현서 103,500 무명 5,500 무명 12,250 무명 14,030 박형근 18,590 손일웅 39,800 양영신 25,890 연병옥 22,430 유경숙 64,090 유경숙 35,690 이명희 71,110 이병주 16,810 이지원 49,700 이창한 15,120 이항애 39,930 이혜자 8,560 장길호 29,680 차은희 27,890

이산

김승현 41,020 박세인 29,730 박솔지 27,510 이순분 42,220 최윤실 38,240

울산

구희진 13,380 김민희 27,340 김민준(주미영) 20,920 김명은 6,250 김영주 3,000 대호번호판제작소 1,000 무명 65,400 무명 26,660 무명 13,310 박병식 59,100 박성형 13,240 박성형 8,040 봉계농협 28,390 송치과 14,920 아름드리어린이집 13,360 뚝수선 1,210 장남순 14,540 태화병원 17,830 허남은 33,050

제천

김상희 19,430 박이현 20,020 이문성 18,320 이정자 4,100

창원

김상석 32,690 백중호 37,690 이원기 9,630 하영주 41,540

청주

강정자 28,810 기홍진 36,340 김수찬 34,720 무명 26,860 무명 14,040 박세준 6,100 박준자 34,280 신이순 29,710 오수경 27,700 오창이 25,140 오창이 20,160 윤정희 30,760 자비행 35,150 린동선

36,500 한미경 28,520

포항

김동균 28,870 김주연 20,300 박영자 15,450 정해수 42,000 최춘해 23,810 추지민 24,840

해운대

김연금 45,180 무명 3개 71,850 박선희 45,350 박성우 20,720 오경옥 24,790 옥유득 39,010 정지희 28,710 정해진 13,750 진호 18,450 최문숙 28,150

기타

(주)탐앤탐스로데오점 116,290 관천농협신동지점 20,560 김건호, 김현호 48,360 김광재 33,800 김광제 31,830 김중권 118,530 설미선 200,000 심연숙 32,450 오송농협의료단지지점 60,320 유병일 40,920 윤미숙 30,050 윤지애 20,120 전옥수 63,590 정은숙 28,150 탐앤탐스방배카페골목 140,270 한승명살레 10,650

거리모금 현황

광주과학교 280,420 구미 538,820 대구 1,149,630 동래남산초등4학년 165,150 마산코오롱사우나 314,650 박정미(열린법회) 133,270 부산강연회기부금 1,000 분당 99,050 서울인사동 772,870 열린법회모금 248,960 울산 94,260 입재식모금(컴보디아) 736,500 정영선(열린법회) 163,000 통영 403,200



아름다운 세상을 만드는 손길 - 자원봉사활동

지원하고 싶은 자원봉사를 선택하여 활동하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JTS 자원봉사 문의 02)587-8756



해외 자원봉사를 경험하세요

교육, 의료, 마을재건에 따뜻한 손길로 나눔을 실천하실 수 있습니다. 작은 손길들이 모여 만드는 나눔의 현장에 함께해주세요.
해외봉사 분야 : 건축, 농사, 회계, 의료, 언어, 교육 등

국내 자원 봉사에 함께하세요

한국JTS 사무실에서, 프로젝트 캠페인 등 여러가지 나눔 활동에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손길로 따뜻한 마음을 나누주세요. 다양한 분야에서 아주 작은 재능으로 큰 마음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그 작은 시작을 통해 도움이 필요한 곳에 꼭 필요한 손길이 되어주세요.
국내봉사 분야 : 번역, 온/오프라인 홍보, 캠페인, 후원관리, 영상, 출판/인쇄, 교육 등

아름다운 이웃을 만드는 나눔 - 나눔회원활동

지원하고 싶은 기금을 선택하여 기부하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JTS 나눔기금 문의 02)587-8995



나누는 일은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덜 쓰고 덜 가짐을 통해서 나누는 일은 나 그리고 우리 모두가 더 행복해질 수 있는 길입니다.

나눔회원으로 행복을 찾으세요

나눔회원 신청 방법은 홈페이지를 통해 자세하게 확인하실 수 있고 신청서 작성을 통해 활동하실 수 있습니다.

또 다른 나눔으로 함께하세요

한국JTS 네이브 해피빈나눔 <http://happylog.naver.com/jtstogether>
한국JTS 나눔저금통 작은 저금통에 큰 마음 담기

[한국JTS 투명한 기금 운영알기]

JTS에서는 계정을 공개하고 있으며 연 2회 홈페이지와 소식지를 통해 소중한 기금의 운영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